"동물 생명권 확보 불교 앞장서자"

한국불교학회,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 워크숍

그저 살인을 즐겼다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씨 이야기가 연일 매스컴마다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다. 범행현장마다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씨의 범행에는 잔인 · 잔혹 등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그의 살인행위는 자신의 욕구를 그릇된 방법으로 풀어낸 결과다.

'일체중생'에는 사람 뿐 아니라 동물, 식물 등 유정물이 모두 포함된다. 주인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 도살장 ·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들. 주변의 동물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또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고 개선을 위해 실천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2월 3일 서울 불광사에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을 주제로 겨울 학술 워크숍을 개최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월 3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겨울워크숍의 발표 및 논평자들. 왼쪽부터 조성택 교수, 허남결 교수, 우희종 교수, 안성두 교수.

행사에는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를,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불교정신과 동물의 생명권'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허남결 교수(동국대)와 조성택 교수(고려대)가 참석했다.

우 교수는 "우리 사회 속 동물학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내는 거울"이라며 "생산성이라는 탐심(貪心), 육식에 깔려있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진심(嗔心),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빚어내고 있는 결과에 대한 무지라는 치심(癡心)의 반영이 바로 우리 사회 속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불자들 중에는 동물의 생명권이나 불살생계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식물도 생명이니 먹지도 말고 죽어야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처님의 상의상존하는 연기법에 따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육식문화를 포함한 동물의 생명권 문제에 흑백의 이분법적 오류를 떠나 생명존중이라는 가치관에서 접근하자는 말이다. <화엄경>의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含十方 , 一切塵中亦如是)'처럼 티끌에 온 우주가 담겨있고 동시에 온 우주 역시 티끌임을 안다면 생명존중을 항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희종 교수는 탐진치의 해결을 인식과 가치기준의 전환으로 제시했다. 깨달음을 인식의 전환 등으로 설명해온 그간의 주장에 비춰볼 때 결국 육식문제 해결법도 수행이다.

우 교수는 "동물생명에 대한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운동을 통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이 불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며 "'소욕지족'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학회 차원의 문화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동물학대 문제는 개인윤리가 아니라 집단윤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범불교적 차원에서 '동물의 생명권 확보를 위한 실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동의했다.

안성두 교수는 "육식을 하고 안하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 더 고결한 선택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님은 육식을 하라고도, 금하지도 않았다. 육식의 허용 여부에 집착하는 것이 육식하는 것보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능가경> 등 대승불교에 이르러 일체중생에 대한 대비심을 강조하며 육식을 금할 것을 제안하게 됐다.

안 교수는 "동물학대는 먹이사슬의 한쪽 끝에 선 인간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성두 교수는 이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 △공장식 집단사육을 피하고, 도살할 때 고통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시도 △동물공장에서 사육한 고기 먹지 않기 △남은 음식 최소화하기 △육식문화의 한계와 파괴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등을 제안했다.

한편 우희종 교수와 조성택 교수의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문화운동 제안에 한국불교학회는 집행부 회의를 거쳐 위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일관성 없는 영문표기 바로잡아야"

장은화 국제포교사 '불교문화' 2월호에서 지적

국보 제206-2호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는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할까?

문화재청 영문홈페이지(english.cha.go.kr)에는 'National Treasure No. 206-2 Hwaeomgyeonggwanjajaebosa-lsoseolbeommunbyeolhaengso(Avatamsaka sutra)'라고 표기했다. 한글 명칭을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로 옮기고 괄호를 달았다. 괄호 빼고 글자 수가 무려 51개. 외국인이 알아보기 쉬울 리 없다.

국제포교사로 활동 중인 장은화씨는 <불교문화> 2월호에 연재중인 '불교문화재 영문안내판 바로잡기'에서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의 문화재 표기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에 발음 안내 같은 것도 찾을 수 없다.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기는 아이러니"라며 "정확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문화재의 영문표기는 국가기관이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불교문화> 2월호에는 불교문화에 관한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려있다.

장은화씨는 "문화재 명칭은 한 사물을 지칭하는 한 개의 단어가 아닌 다양하고 잡다한 설명어구가 응집된 표현"이라며 "번역된 명칭만으로도 대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불교문화재의 바른 영문표기를 위해 △로마자의 음가 표기 대신 한글 명칭의 의미 전달 △불교계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화씨는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는 'Special commentary on Avalokitesvara Bodhisattva Dhama Talks in the Avatamaka Sutra'로, '목조삼존불감(Mokjosamjon bulgam)'은 'Wooden cabinet enshrining a Buddha triad' 등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시설물 무단 침입방화 대응훈련

문화재청, 숭례문 화재 1주년 맞아 수원화성서 진행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숭례문 화재 1주년(2월 10일)을 맞이해 문화재시설물 무단 침입방화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2월 4일 수원화성 행궁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훈련은 문화재청 수원화성사업소,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중부소방서, 무인 경비업체 등이 참가했다.

합동훈련은 안전경비인력이 중요목조문화재 내 무단침입자 최초 발견시 초동대응 조치하고, 이후 출동한 무인 경비업체, 경찰관, 소방관이 합동으로 무단침입자를 제압, 화재를 진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홍두식 재난관리총괄담당(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은 "이번 합동훈련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현장에 배치중인 안전경비인력과 경찰서, 소방서, 무인경비업체가 유기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훈련을 통해 사회 · 개인적 불만을 문화재 방화로 표출하려는 의도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무단 침입자에 의한 문화재 화재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무단침입방화 대응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옥천암 '보도각 마애보살' 불사 마치고 점안

2월 12일 천일기도 입재

옥천암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 3년 여의 긴 불사를 마치고 새 옷을 입는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2월 12일 오전 10시 '보도각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1000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이날 점안식에는 증명에 설정 스님(화계사 회주), 법주에 원명 스님(조계종 어장)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말~조선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은 5m 규모로 커다란 바위(화강암 바위 전체 높이 10m)에 부조로 새겨져 있다. 전체적으로 흰색 호분이 두껍게 칠해져 있어 '백불(白佛)' 또는 '해수관음'이라 불린다. 보살좌상의 양 무릎이 심하게 훼손돼 복원작업을 진행해 왔다.

2월 12일 점안 예정인 서울 옥천암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

한편 점안식과 함께 입재하는 1000일기도는 참가자가 각자 100일 동안 절과 염불, 주력 등을 정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일기도는 10회에 걸쳐 천일동안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395-4031

김진성 기자

'전자불전' 10집 발간

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콘텐츠 연구소(소장 보광)가 발행하는 <전자불전> 제10집이 최근 발간됐다.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간된 제10집에는 △대장경과 교판(지창규 교수, 동국대) △디지털 대장경의 미래와 고려대장경의 지위(오윤희 소장, 고려대장경연구소)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정승석 교수, 동국대) △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고찰(박종린 위원, 동국역경원) 등이 게재됐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 21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2008년 불교학연구회 학술행사에 발표된 논문들과 함께 남궁선 박사(동국대)의 '발우공양법의 수행 및 생태적 고찰' 등 18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한편 우제선 교수(동국대)는 <불교학연구> 신임 편집위원장에 선임됐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원통보전 전면해체 복원

9억8000만원 규모

보물 제516호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이 전면 해체 복원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월 28일 충북 보은군과 함께 원통보전의 지붕과 기둥, 벽체 등을 해체하고 부식된 목부재를 교체해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9억800만원 규모의 이번 해체 · 복원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원통보전은 554년(신라 진흥왕 14년) 건립돼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됐다. 현재의 보전은 벽암 대사가 1624년(조선 인조 2년) 복원한 정사각형 1층 건물로, 지붕 중앙에서 4면으로 동일하게 경사진 사모지붕이 특징이다. 보전 내에는 2.8m의 목조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현재 불전 서쪽 기둥이 심하게 부식되고 나머지 기둥도 변형된 데다 1970년대 초 덧씌운 외벽 단청도 탈색된 상태다.

김진성 기자

서울불교문화대학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

승가학과 (2년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스님들께 수행의 바쁜 일정 속에서 불교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이론과 의식을 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서 3기 승가학과 학인을 모집합니다. 강원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강의와 교계 최우수 교수진으로 스님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들을 선정하였고 2009년 원전강독과 훨씬 보강된 불교의식 교육을 선보일 본 대학에 스님들께 입학을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불교경전개요. 근본불교사상. 초발심자경문. 법화경강의. 불교의식	인도불교사. 대승기신론. 법화경강의. 불교의식
2학년	중국불교사. 유식 · 중관학. 법화경강의. 금강경 강화. 불교의식	화엄사상. 천태소지관(원전강독) 법화경 강화. 불교의식
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 졸업자격 : 50%이상 출석한 분만 졸업가능.(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 출석체크)

▶ 강의 시간 (1학년1학기)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 20분				법화경 입문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2교시	오후 3시30분 ~ 5시				불교의식	근본불교	

■ 신입생 모집 : 총 60명 ■

구분	주간반 30명	인터넷반 30명
수업료	53만원(한 학기 분)	55만원(한 학기 분)
	입학금 10만원(입학시 1번만 납입)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 성직자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승려, 법사, 행자 (단, 은사 추천 시)

▶ 특 전 : 1)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2)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추천

불교학과 (6개월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일반불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불교'라는 교육이념 아래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3기 졸업생 2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 불교를 바르게 알고 알리는 불자들을 양성하는 본 대학에 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 마땅히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일깨워 줄 소중한 인연도량에 입학을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 교과목 소개 - 6개월 과정

교 과 목	강 의 소 개
근본불교	불교를 학문적, 철학적 논리로 보면서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전 과정을 배우고 한국 최고의 교수님께 배울 수 있는 시간
불교신행강좌	이론적으로 배운 불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보현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입각하여 배우는 강좌
불교문화와사회	불교가 우주를 포섭하고 있음을 기초 교리에서 공부했다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자, 영어, 포교대화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제시

▶ 강의 시간표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2시 50분					근본불교	불교신행
2교시	오후 3시-3시 50분						불교문화와 사회

■ 신입생 모집 : 총 120명 ■

구분	주간반 60명	인터넷반 60명
수업료	18만원	20만원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가능 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바른 마음을 내신 모든 분들

■ 교수진 소개 ■

교 과 목	교 수	소 개
법화경 강의	홍파학장큰스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수료, 현 서울불교문화대학 학장
	박 종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동국대학 사범대학 부고 교사역임.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역임, 현 동산불교대학 교수
초발심자경문	운산 스님	전 강원 강사, 원전강독 강의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 대학원 금속공학 석 · 박사 학위. 신락원(信樂苑)에서 매주 법화경 강의.
불교의식 강의	혜담 스님	1992년 인간문화재 정지광 스님 법상좌 범패, 장엄부문 문화재 이수자
	종일 스님	1967년 월하스님 문하 입산, 1979년 통도사 강원 졸업. 1999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 지정.
불교경전개요	이평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학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불교학과 이사장 역임
근본불교, 금강경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박사 수료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중국불교사	신규탁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동경대학 대학원인도 · 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유식 · 중관학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박사 수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 불교 전공
불교학과 신행강좌	여여 스님	불교학과 불교신행, 불교문화와 사회 강의
특 강	교계 최고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 경장, 율장, 논장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09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반명함판) 2매

▶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입학일시 :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

▶ 원서 교부 접수 및 문의 처 :
1) 교학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우) 110-550)
2) 연락처 : 본 대학 교무처 ☎ 02)763-3001 / Fax. 02)763-5851
3) 인터넷자료 http://www.seoulbcc.kr 입학원서다운 가능
4) E-mail - yeodiamond@naver.com